## 밤 하늘의 서사시

### 송번수



Song BurnSoo, Epic of the Night Sky, Installation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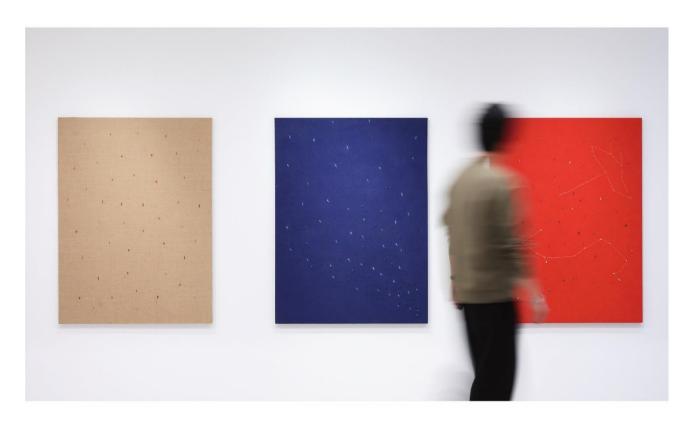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하나의 가능성을 향해서 그것이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그 가능성을 향해서 접근하는 방식. 그 방식이 결국 생활의 방식이고 삶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_송번수

1975 년 파리 유학시절부터 송번수는 가시가 있는 장미를 목판화로 제작하였고, 이후 '가시'는 태피스트리로 종이부조와 판화, 회화로 삶과 예술이 응축된 작가 자신의 본질적인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끝없는 의식의 흐름이 반영된 테마가 된다. 절망과 가능성 사이, 수난과 기쁨 사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순수하고

### SONG ART GALLERY

빛을 갈망하며 고뇌하는 가시를 씹는 예술가의 여정에서 노년의 송번수가 표현하고 있는 승화된 가시는 우주적 경이를 표현하는 또 다른 가능성을 향해 있다.

세상을 유지하고 이루는 균형, 별들의 위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매료시키는 것들이 작가의 손에 다듬어진 가시들이 이루는 균형과 배열로 캔버스 위로 가시가 서있고 가시 형태를 이루는 변화하는 그림자가 있다. 가시는 이제 땅의 심연이 아니라 하늘의 심연이 된 것이다. 미지의 세계로 작가의 시선은 위를 보며 확장된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자신을 인식하며, 붉거나 파란 무중력의 세계 가운데 서 있는, 존재를 표상하는 가시는 아름다운 형태로 빛과 그림자로 인해 진동하는 존재로 있다. 여기서 존재들이 존재하는 방식, 밤 하늘의 서사시가 영원한 시간 안에서 펼쳐진다.



Song BurnSoo, Epic of the Night Sky, Installation view

"그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유한한 삶의 지평에서 하루 동안 허락된 전진과 전환의 깃발을 휘날리는 것이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 노동이란 곧 삶의 존재의미이자 예술개념을 파종하는 물리적 동인으로 작동되어 왔다. 그는 생각하고 실천하고 표현하는 하루의 일과가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자의 일상과도 같다. 악기를 닦고, 마음을 가다듬고, 악보를 재해석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새로운 음률을 창출하는 태도. 그러나 그는 반복적 연습으로서 연주가 아니라 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로 새로운 연주회를 준비한다. 하루하루 그의 손에서 생성되는 음률들은 즉흥적이면서도 광적이고, 체계적이지만 반전의 궤적들로 아로새겨 왔다. 이런 지점에서 나는 송번수라는 작가를 일탈의 초현실주의자, 가능성을 향한 모험주의자, 제도적 틀을 거부하는 전위주의자로서 그의 예술적 면모를 발견하곤 한다. 판화가로서, 섬유예술가로서 투신해 온 지난 50 여 년의 궤적과 일흔의 중반을 넘어서는 그에게서 나는 아직도 비밀스런 '최후의 만찬을 기대하고 있다." 장동광, 2017

송번수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이자 1998 년 섬유공예 후학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접 설립한 마가미술관의 관장이다. 2000 년 국민포장 훈장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2001 년 《헝가리 개국 1000 년 기념 국제 타피스트리 전시회》대상을 수상하였다. 2017 년 국립현대미술관 회고전 《송번수\_50 년의 무언극》을 포함 솔로몬 R. 구겐하임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 뉴욕, 2023), 해머 미술관(Hammer Museum, LA, 2024), 경기도미술관(2016), 부다페스트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udapest, 2005), 국립현대미술관(2003), 대전시립미술관(2000), 부산시립미술관(1999), 도쿄시립미술관(1987), 제 3 회 앙데팡당전(1975), 제 1 회 에꼴드 서울(1975), AG(한국아방가르드협회) 2 회전(1971) 등 유수의 기관의 전시에 참여했다. 작가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부다페스트 국립미술관(National Museum of Budapest, Hungary), 제네바 한국 유엔본부(H.Q of Korean U.N., Switzerland) 등에 소장되어 있다.

### **밤 하늘의 서사시** – 송번수

송아트갤러리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아크로비스타 아케이드 B133 M&SONG ART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7길 23 문의 02-543-0543 / mandsongart@naver.com 일정 2024년 12월 4일(수) – 2025년 1월 3일(금) 문의 02-3482-7096 / haksoosong@naver.com

# Epic of the Night Sky SONG BURN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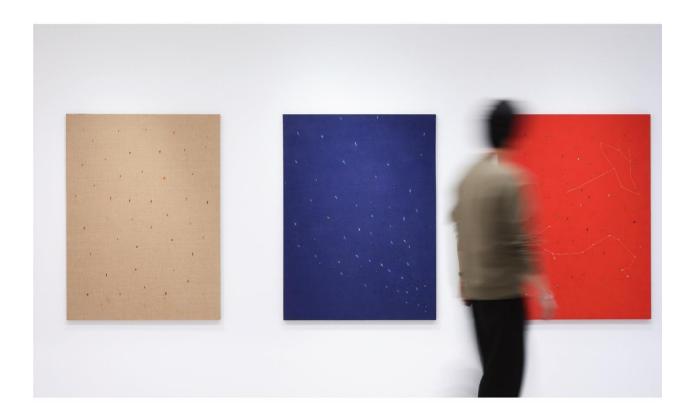
Song BurnSoo, Epic of the Night Sky, Installation view

"The night sky full of stars is my eternal inspiration. Everyone has a way of approaching a single possibility whether it's about a family, a society or a country, and it came to my mind that it's a way of daily life and a philosophy of life." \_Song BurnSoo

Song BurnSoo has produced woodblock prints of thorny roses ever since he began studying in Paris in 1975, and the thorn has settled as a major motiffor his tapestries, paper reliefs, prints, and paintings, embodying his life and art and reflecting his stream of consciousness—where his gaze is fundamentally directed. His artistic journey, dedicated to a rumination on the idea of thorns, has been a process of pursuing purity and light in the

gray zones between despair and hope, suffering and joy, and life and death. The thorn as sublimated through this senior artist's expression points to an alternate possibility of visualizing cosmic wonder.

The balance of elements that make up and maintain the universe, the positions of stars, and other mysterious yet fascinating subjects are embodied by the thorns, meticulously arranged and refined by the artist's hands. The thorns stand upright on the surface of the canvas as their spiky shadows create alternate forms. The thorns are no longer an abyss extended down to the ground but up toward the sky as the artist's gaze expands upward into the unknown world. The thorns, standing in the middle of a weightless world of either red or blue, recognize themselves and the world around them as they exist as beautiful forms that quiver in response to lights and shadows. And within this world, the epic of the night sky unfolds through eternal time to narrate their mode of existence.



Song BurnSoo, Epic of the Night Sky, Installation view

"According to Song, creating art is like waving a flag of progress and change for one day during a finite lifespan. For him, labor is more than just a physical process for enacting and disseminating his artistic concepts; it is the source of the existential meaning of life. In his daily labor of thinking, practicing, and expressing, he is like a member of an orchestra formulating the proper environment for composition: cleaning his instrument, collecting his wits, reinterpreting the score, etc. But for Song, rather than a performance of

repetitive drills, each concert is a new and challenging experiment. ... He is simultaneously a surrealist pursuing deviations, an adventurist who is open to all possibilities, and an avant-gardist renouncing the institutional frame." \_Chang Dong-kwang

In 2000, he received the decorated Order of National Service Merit in Korea, and in 2001 he won the first golden fleece prize on the occasion of the 1000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the Hungarian State. Along with the large-scale retrospective, <Song BurnSoo\_Pantomime of 50 Years> i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his work has been featured in exhibitions in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2023), Hammer Museum (LA, 2024),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2016), Museum of Fine Arts Budapest (2005), MMCA Korea (2003), Daejeon Museum of Art (2000), Busan Museum of Art (1999), Tokyo Metropolitan Art Museum (1987), The 3rd Indépendants(1975), The 1st Ecole de Séoul(1975), The 2nd Korea's AG(Avant-Garde) Group(1971).

His work is represented in the collections of MMCA Korea, Seoul Museum of Art, Busan Museum of Art, Daejeon Museum of Art, National Museum of Budapest and H.Q of Korean U.N., Switzerland.

### **Epic of the Night Sky-SONG BURNSOO**

Dec 4, 2024 - Jan 3, 2025

#### SONG ART Gallery

B133 Acrovista Arcade, 188, Seochojungang-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06600 T +82 2 3482 7096/ <a href="mailto:haksoosong@naver.com">haksoosong@naver.com</a>

### **M&SONG ART**

Dosan-daero 27gil 23,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06032 T +82 2 543 0543 / mandsongart@naver.com